

아동의 성격 5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조옥선¹, 손성희², 박인엽^{3*}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²한양대학교 강사, ³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5 on Happiness in Children W: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lasticit

Ouk-Sun Cho¹, Sung-Hee Sohn², In-Youb Park^{3*}

¹Lecture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ion, Hansei University

²Lecture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yang University

³PhD,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ion, General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이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PSKC) 12차 데이터(2019)로 조사 당시 4학년인 1,4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친화성 및 신경증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 아동, 성격5유형, 자아탄력성, 행복감, 매개효과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lasticity was verified in the effects of extroversion, openness, affinity, sincerity, and neurosis, which are child's personality type 5 variables, on happiness. In the 12th year (2019)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PSKC), 1,412 fourth graders were targe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analysis aspect of Baron & Kenny(1986),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sobel test analysis. As a result, self-elasticity was completely mediated between extroversion and openness and child happiness, and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inity and neuroticism and happiness. Therefore, basic data are provided for program and policy development so that children can have a sense of happiness through appropriate intervention that increases their self-elasticity.

Key Words : Children, Personality type 5, Resilience, Happines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In-Youb Park(orqapark@naver.com)

Received December 05, 2022

Revised Dec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4,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1. 서론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학령기 아동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아동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행복감은 연령이나 지위, 성별 및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1]. 아동의 행복감은 긍정심리학의 부상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감은 아동의 강점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발휘되는 삶 속에서 행복을 강조함으로 행복이 더 싹트는 것이다[2,3]. 이에 아동교육 현장에서도 긍정심리학의 등장 이후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행복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동의 행복감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만성질환이나 조기 사망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George[4]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행복한 아동은 진취적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 유능성,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정된 행복감은 아동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3,5]. 이처럼 아동기에 스스로 행복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힘을 길러준다면, 이후 성장 발달에서 행복한 성향을 가질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2,6]. 이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의 행복감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질 또는 성격[7-10], 사회적 지지[11], 자아존중감[12,13], 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14,15], 부모자녀 의사소통[1,16], 자아탄력성[11,17,18], 일상생활스트레스[18, 19] 등이 고찰되었다.

아동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고 자신의 성격5요인들이 본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1]. 아동의 성격특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성격은 내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추론될 뿐이므로 심리학자들은 그동안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격평가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16]. 아동의 행복감과 성격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유형 중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성격보다 더 행복감이 높다고 밝혔다[10,16]. 그리고 아동의 성격유형이 신경증 성향(정서성이라고도 함)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고 강조하였다[20]. 이처럼 아동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성격요인인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정요인인 신경증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성격요인은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의 성격 유형이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연구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깨닫고 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립변수로 아동의 성격5유형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아동이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하는데 관련된 요인으로서 강조되어 온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감동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가미된 상황적 사건이거나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밝혀져 왔다[21].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이 불행한 사건과 어려움에 대처도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을 말한다[22,23]. 따라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새롭고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도 유능하며,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더 나아가 매우 복잡한 자극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응적으로 행동하고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갖게 된다[18,24].

즉, 아동의 탄력적 성향은 다양각색의 관계를 주도하며,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배양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을 보다 잘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어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26].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혀졌다[20,25].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융통성과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나 낯선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 행복감이 낮아

진다고 하였다[26]. 이처럼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기술을 발휘하여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행복한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성격5유형이 자아탄력성에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와함께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내적 요인의 하나로서 성격특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의 차이는 일상 모든 분야에 관여되며, 아동의 성격을 구분 짓는 가장 보편적인 차원은 내향성, 외향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과 행복감 간에 있어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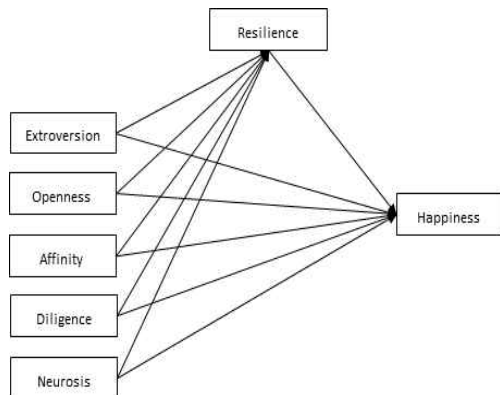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2차[27]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 시점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150명 중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한 1,412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아동에 대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는 성격5유형, 매개변수로는 자아탄력성, 종속변수로는 행복감으로 구성되었다.

2.1.1 독립변수: 성격유형

독립변수인 아동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7]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성격5유형의 하위요인으로는 ‘외향성(3문항)’, ‘개방성(3문항)’, ‘친화성(3문항)’, ‘성실성(3문항)’, ‘신경증(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의 응답범주는 1점 매우 낮음부터 5점 매우 높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의 Cronbach’s alpha값은 .656, 개방성의 Cronbach’s alpha값은 .686, 친화성의 Cronbach’s alpha값은 .714, 성실성의 Cronbach’s alpha값은 .779, 신경증의 Cronbach’s alpha값은 .844로 나타났다.

2.1.2 매개변수: 자아탄력성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7]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으로는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아탄력성의 Cronbach’s alpha값은 .848로 나타났다.

2.1.3 종속변수: 행복감

종속변수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7]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으로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머니?’,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머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부터 5점 ‘매우 행복해요’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행복감의 Cronbach’s alpha값은 .75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격5유형, 자아탄력성,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격5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eny[28]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 추출한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Children Gender	Male	724	51.3
	Female	687	48.7
Children Health Conditions	Be in bad health	29	2.0
	Normal	125	8.9
	A health person	818	58.0
	Very health	439	31.1
Mother Grade	High Low	361	25.6
	College	404	28.6
	University	528	37.4
	Graduate or above	93	6.6
Monthly Average Income	240 million Low	44	3.1
	241 ≤ ≤360	226	16.0
	361 ≤ ≤480	262	18.6
	4801 ≤ ≤600	425	30.1
	601 million High	454	32.2

먼저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724명(51.3%), 여아 687명(48.7%),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29명(2.0%), ‘보통’ 125명(8.9%), ‘건강한’ 818명(58.0%), ‘매우 건강함’ 439명(31.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

력 ‘고졸 이하’ 361명(25.6%), ‘대학 2-3년제 졸업’ 404명(28.6%), ‘4년제 졸업’ 528명(37.4%), ‘석사 이상 졸업’ 93명(6.6%), 월 평균 소득은 ‘240만원 이하’ 44명(3.1%), ‘361만원 이상~480만원 이하’ 262명(18.6%), ‘481만원 이상~600만원 이하’ 425명(30.1%), ‘601만원 이상~454(32.2%)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먼저, 성격 5유형의 외향성의 평균값은 3.21(sd=.74), 개방성의 평균값은 2.88(sd=.74), 친화성의 평균값은 3.22(sd=.75), 성실성의 평균값은 2.83(sd=.77), 신경증의 평균값은 2.87(sd=.66),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은 3.01(sd=.46), 행복감의 평균값은 3.25(sd=.44)로 나타났으며, 행복감 점수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절대값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	Kurt
Extroversion	1.00	5.00	3.21	.74	-.05	-.218
Openness	1.00	5.00	2.88	.74	.10	.063
Affinity	1.00	5.00	3.22	.75	.08	-.171
Diligence	1.00	5.00	2.83	.77	.25	-.106
Neurosis	1.33	5.00	2.87	.66	.296	-.282
Resilience	1.17	4.00	3.01	.46	-.048	.129
Happiness	1.50	4.00	3.25	.44	-.485	.127

3.3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1						
②	.40**	1					
③	.35**	.33**	1				
④	.47**	.58**	.58**	1			
⑤	-.30**	.06*	-.60**	-.34**	1		
⑥	.57**	.43**	.47**	.45**	-.34**	1	
⑦	.37**	.23**	.52**	.42**	-.51**	.53**	1

주) *p<.05, **p<.01, ① Extroversion, ② Openness, ③ Affinity, ④ Diligence, ⑤ Neurosis, ⑥ Resilience, ⑦ Happiness

아동의 행복감은 성격 5유형의 외향성($r=.37, p<.01$), 개방성($r=.23, p<.01$), 친화성($r=.52, p<.01$), 성실성($r=.42, p<.01$), 자아탄력성($r=.53, p<.01$)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신경증($r=-.51, p<.01$)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모든 변인 간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3.4 매개효과 검증

3.4.1 성격 5유형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의 성격5유형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28]의 3단계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Table 4>. Model 1에서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 5 유형별 변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Model 2의 성격 5 유형별 변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Model 3에서는 성격 5 유형별 변인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beta=.371, t=15.017, p<.001$), 개방성($\beta=.226, t=7.905, p<.001$), 친화성($\beta=.202, t=6.572, p<.001$)은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지만 신경증($\beta=-.118, t=-4.084, p<.001$)은 자아탄력성에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성실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격5유형 중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친화성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4.8%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beta=.139, t=5.305, p<.001$), 개방성($\beta=.088, t=2.882, p<.01$), 친화성($\beta=.205, t=6.242, p<.001$)은 행복감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신경증($\beta=-.328, t=-10.610, p<.001$)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Model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과 자아탄력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화성($\beta=.143,$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Personality 5 types→ Resilience			Personality 5 types→ Happiness			Personality 5 types+Resilience→ Happiness		
	B	β	t	B	β	t	B	β	t
Children Gender	.008	.009	.448	.034	.039	1.774	.032	.036	1.717
Children Health Conditions	.036	.053*	2.541	-.012	-.018	-.798	-.022	-.034	-1.580
Mother Grade1	.082	.080*	1.970	-.052	-.052	-1.194	-.076	-.076	-1.825
Mother Grade2	.080	.081*	1.980	-.027	-.028	-.636	-.050	-.052	-1.247
Mother Grade3	.051	.055	1.316	-.023	-.025	-.567	-.038	-.042	-.981
monthly average Income	-.008	-.020	-.892	-.001	-.002	-.094	.001	.004	.166
Extroversion	.225	.371***	15.017	.083	.139***	5.305	.016	.027	1.002
Openness	.137	.226***	7.905	.052	.088**	2.882	.011	.019	.649
Affinity	.122	.202***	6.572	.120	.205***	6.242	.084	.143***	4.488
Diligence	-.003	-.005	-.155	.034	.059	1.812	.035	.060	1.935
Neurosis	-.081	-.118***	-4.084	-.218	-.328***	-10.610	-.194	-.292***	-9.790
Resilience							.295	.302***	10.699
F	96.2192***			50.804***			80.100***		
R	.448			.366			.424		
R ²	.443			.134			.419		
Durbin-Watson	1.917			1.838			1.917		

*p<.05, **p<.01,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통제변수인 아동의 건강상태($\beta=.053, t=2.541, p<.05$)는 자아탄력성에

$t=4.488, p<.001$)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모형 보다 낮은 값으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신경증

($\beta=-.292$, $t=-9.790$, $p<.001$)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모형보다 절대값이 낮고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지만 외향성($\beta=.027$, $t=1.002$, $p>.05$)과 개방성($\beta=.019$, $t=.649$, $p>.05$)은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2$, $t=10.699$, $p<.001$).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과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자아탄력성이 둘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친화성과 신경증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성실성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6>. 먼저, 외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11.63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방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7.384,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화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6.064,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경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3.95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신경증은 행복감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Sobel test

Variable	Soble test statistic	p
Extroversion→Resilience→Happiness	11.636	.000
Openness→ Resilience →Happiness	7.384	.000
Affinity→ Resilience→ Happiness	6.064	.000
Neurosis→ Resilience→ Happiness	-3.956	.000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 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신경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28]의 3단계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성격 5유형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졌다. 신경증이 다른 유형보다 행복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신경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긍정적인 성격유형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주입식 수업보다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나 전달법’과 역할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내향성이 강한 아동에게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며, 소소한 일에도 교사와 부모님 및 주양육자가 칭찬을 아낌없이 해줌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소심한 아동들에게도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별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별활동에서 아동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면 행복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경증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동에게 관심과 격려 및 지지를 해주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여행과 운동 및 산책 등을 권유하고자 한다. 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보다는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동은 이를 보고 학습을 하게 되어 행복이 가중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외향성과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동은 이들을 모델링하므로 격려와 지원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켜주고 원활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고 흥미로운

일에 에너지가 넘칠 때 친구관계, 자신의 외모, 학교 공부, 가족에 대해 행복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관계성 향상과 외모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연구자가 직접 설계하지 않은 2차패널 자료를 활용으로 인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수만 선정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격5유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요즘 아동의 행복감이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이 시점에 본 연구에서 아동의 가정과 또래관계 및 학교환경에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실천적 제언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J. S. Lee & E. J. Kim.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5), 433-445.
DOI : 10.5934/kjhe.2013.22.5.433
- [2] Y. H. Kim & S. Y. Kim. (2018). An Analysis of the Individual and Maternal Variables that affect Young Children's Happin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7(2), 27-46.
DOI : 10.17643/KJCE.2018.27.2.02
- [3] M. E. P. Seligman.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New Delhi.
- [4] L. K. George. (2010). Still Happy After all These Years: Research Frontiers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3), 331-339.
DOI : 10.1093/geronb/gbq006
- [5] E. Y. Shin & M. A. Kim. (2018). Effects of Mothers' Coaching Capabilities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Autonomy -.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7(2), 215-246.
DOI : 10.21183/kjcm.2018.09.17.3.215
- [6] S. M. Choe & M. S. Choi. (2016).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its Variables: Temperament,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4), 315-336.
<http://www-riss-kr.libproxy.komu.ac.kr/link?id=A104857322>
- [7] H. S. Shin.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8] M. D. Holder & B. Coleman. (2008). The Contribution of Temperament, Popularity, and Physical Appearance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279-302.
- [9] M. D. Holder., B. Coleman & K. Singh. (2012).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Children in Ind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261-274.
- [10] M. D. Holder & A. Klassen. (2010).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419-439.
- [11] S. D. Han.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which has Affect on the Happiness, of Self Elastic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Children.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2), 111-134.
<https://www-earticle-net.libproxy.komu.ac.kr/Article/A318106>
- [12] H. J. Kim & T. S.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2), 723-742.
DOI : 10.22251/jlcci.2019.19.22.723

- [13] J. K. Lee & H. C. Cho.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0), 41-71.
- [14] E. O. Jun & N. Y. Choi. (2013). Mother's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2, 103-126.
- [15] H. J. Jung. (2019).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o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ren's Happin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8(1), 97-120.
DOI : 10.17643/KJCE.2019.28.1.06
- [16] Y. H. Kim & M. H. Kang.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35-54.
<http://www-riss-kr.libproxy.kornu.ac.kr/link?id=A102954643>
- [17] H. S. Ryu & J. Y. Kim. (2018). The Effects of a Positive Psychology Program on Late School-age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4), 193-201.
DOI : 10.21184/jkeia.2018.6.12.4.193
- [18] H. Y. Shin & J. H. Kim. (2020).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aily Hassles and Self-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6), 837-846.
DOI : 10.5934/kjhe.2020.29.6.837
- [19] H. S. Kim. (2015). The Process Analysis Effect of Social Support, Daily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Happiness of Children in Single Parent Family -Multi-Group Analysis on the Poor and Non-poor-.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2), 279-307.
- [20] Y. H. Kwon. (2013). Child's Happiness: Effects of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25-537.
DOI : 10.5934/kjhe.2013.22.4.525
- [21] J. H. Block & H. Block.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13), 39-101.
- [22] D. Cicchetti & N. Garmezy. (1993).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497-783.
- [23] S. S. Luther.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DOI : 10.1111/j.1467-8624.1991.tb01555.x
- [24] M. H. Kim (2006). Effect of Self-elasticity Promotion Training on Middle School Self-elastic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25] A. Y. Lim & M. H.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Coping on Correlation between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with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2), 137-154.
- [26] J. Block & J. H. Block.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oness(Eds.), Minesota Symposia and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2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https://panel.kicce.re.kr/pskc/intro_pskc.do
- [2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조옥선(Ouk-Sun Ch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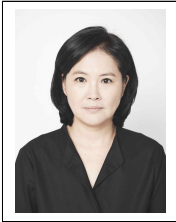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 여성
- E-Mail : sun16070@naver.com

손성희(Sung-Hee Sohn)

[정회원]



- 1989년 2월 : 일본성심여자대학교 서양사학과(서양사학사)
- 2012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재활심리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재단법인 담대표이사

- 관심분야 : 재활복지, 장애인, 가족, 심리
- E-Mail : ddaeun@nate.com

박인엽(In-Youb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농학학사)
- 2021년 2월 : 한경대학교 동물생명환경학과(농학석사)
- 2021년 3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웰니스, 치유농업
- E-Mail : orgapark@naver.com